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권태윤, 김진영, 권지혜(딸14세), 권지성(아들12세)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정글교회 개척사역과 학교사역, 그리고 현지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5년 3월에 KPM(고신총회세계선교위원회)과 기아대책 공동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2년 간의 언어, 문화 적응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깔리만탄섬(보루네오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나 걸리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2억 5천 만명으로 세계 4위를 자랑하고 있고 그 중 90%가 무슬림인 세계최대 이슬람국가입니다. 이슬람, 불교,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유교 6대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자유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국가제도가 이슬람에 집중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저희 가정은 깔리만탄 섬(남한 면적의 7배나 되는 큰 섬)에서 말라유 종족과 다약 종족을 섬기며 정글교회 개척사역과 학교사역, 그리고 현지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딤편중뿌라 국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 교수사역)로 파송되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 상가우군 산잔마을에 위치한 국민 중고등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가우 군에 이사를 오면서 페트루스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국민 중고등학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2012년 안양일심교회 단기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단기사역을 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산잔마을에 임마누엘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페트루스 목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안양일심교회 협력으로 예배당 건축을 도왔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교회당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페트루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곳에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를 짓고 싶다는 비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혀 믿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초보 선교사가 꿈꾸기에는 정말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이 끝날 무렵 산잔마을에 방문하였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상가우 전역에서 모임 청소년을 데리고 말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천막을 설치해 놓고 교회 성도들이 학생들에게 밥을 해 먹여 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산잔마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학

교 1학년 한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종교가 다른 학생들이 입학 을 하여 학업과 함께 말씀으로 교육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중학교가 시작되면서 안양일심교회 한 은퇴장로님의 헌신으로 중학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학 생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건물에서 오전에는 중학교로 오후에는 고등학교로 사용되었습 니다.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국민중고등학교 사역은 이렇 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2016년 상가우군에 이사를 하면서 학교 사역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양일심교회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고등학교 건물이 세워졌고 기숙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 고 기숙사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공사 당시 3층 규모 예상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1층만 완 료되어 기숙사로 사용 중 - 향후 2층과 3층 증축 공사 가능 - 기숙사 기능과 함께 교무실, 서무 실,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가지 기능으로 사용 예상)

안양일심교회 뿐 아니라 여러 한국교회들과 KPM 본부의 후원으로 학교 부엌 공사, 우물공사, 정 수시설, 학용품 지원 등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를 통해 정식학교 등록을 하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 학교운영 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80명 중고등학생들이 기숙사에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교생 중 10%정도만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자 카르타에 있는 몇몇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교육부 지원으 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는 산잔마을 국민중고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해 1회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사범대학에 입학(장학금 지원) 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폰티아낙에 위치한 사범대학 근처에서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을 임대하여 1층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카페를 오픈하였고 2층에서는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카페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숙사는 폐쇄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에는 산잔마을 졸업생 뿐 아니라 서부 깔리만탄섬 전역에서 폰티아낙 사범대학을 입학한 청년들에게도 오픈하여 매주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기독교사로서 비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산잔마을 국민중고등학교 교장인 페트루스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은 가핀교단(GAPPIN)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복음전도자모임 교단입니다. 1970년에 들어왔었던 미국선교사와 호주선교사가 세운 교단으로 처음부터 교회와 학교를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가핀교단은 서부 깔리만탄서 상가우 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으로 상가우군에 있는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 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현재 70여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사역하고 있고 계속 마

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였던 사역이지만 지난 4월에 앤도마스 마을에 현재 기아대책을 통해 교회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도마스 옆 마을인 응갈렛 마을 성도들이 헌신하여 앤도마스 마을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오다 앤도마스 성도들이 땅을 헌납하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가핀교단이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도시가 아닌 정글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현지인 사역자들조차 사역하기 힘들어해 비어있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잔마을 국민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인도네시아 자바섬 말랑지역에 있는 살렘신학교(KPM김재룡선교사)와 MOU를 맺어 신학교에 입학(장학금 지원)시켜 사역자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 졸업과 동시에 가핀교단에 들어와 비어 있는 교회사역과 교회 개척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산잔마을 국민 중고등학교의 비전

- 서부갈리만탄섬 전역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기독교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세례)하여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 1,000명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며 기독교인으로 세워지게 한다.

2. 비전 성취를 위한 준비

1) 1단계 - 사립 중고등학교 위상 강화

- : 학교 시설 현대화 작업
- : 기숙사 현대화 작업
- : 화장실, 샤워실, 학생식당 건축
- : 인재양성을 위한 교사수급 및 교사 기숙사 건축
- : 한국 단기 교사 파송(3개월~5개월) - 음악, 미술, IT교육
- : 도서관, 컴퓨터실 설치
- : 다양한 직업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2) 2단계 - 500명 중고등학교 : 교실, 기숙사, 식당 확충, 교사수급

3) 3단계 - 800명 중고등학교 : 교실, 기숙사, 식당 확충, 교사수급

4) 4단계 - 1,000명 중고등학교 : 교실, 기숙사, 식당 확충, 교사수급

3. 다음세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1) 사범대학 진학 프로그램

: 사범대학 진학 장학금 프로그램 - 10만원/월 4년간

: 대학생 기숙사 사역 지원 프로그램 - 기숙사 건물 임대비 500만원/년

2) 신학교 진학 프로그램

: 신학교 진학 장학금 프로그램 - 10만원/매월 4년간

3) 직업훈련 프로그램 - 예정

: 한국 청년들을 통한 재능기부 단기 선교사 파송 - 3개월

: 영어, 음악, 미술, IT 기술 교육 절실

: 양계, 양돈 기술훈련 - 학교

2022년 7월 현재 산잔마을 국민 중고등학교는 180명 전교생에서 500명 전교생을 목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인도네시아에 복귀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충분히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가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만들려면 더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으고 선교지 현장에서 계획된 일들이 현실이 되도록 사역해 간다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나 필요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인천공항 가는 KTX 열차 안에서 부랴부랴 작성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9일

인도네시아 권시민 선교사 드림